



INDEX

1면 인사말

2면 간호대학 소식

- ▷ 교수동정
 - 김금순 교수 정년퇴임
- ▷ 연구실탐방
- ▷ 간호교육인증평가
- ▷ 간호대학-KOICA 워크숍
- ▷ 간호대학 버스구입
- ▷ 국제교류
- ▷ 인사
- ▷ 간호학캠프
- ▷ 간호대학-서울대학교병원 간호본부 교류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 간호대학-간호본부협의회
- ▷ 2014 학계 교수 워크숍
- ▷ 제 69회 후기 학위수여식
- ▷ 간호대학 환경개선

13면 간호과학연구소 소식

- ▷ 행사안내
 - 2014년 제 10회 국제학술대회
 - 2014년 하반기 수요학술세미나 안내
 - 외국인 저명학자 초청 세미나 안내
- ▷ 연구소 소식
 - 신·구 연구소장 이·취임
 - 학술지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 외국인 저명학자 초청 세미나 개최
 - 다학제 심포지엄
 - 2014년 상반기 수요학술세미나
 - 간호과학연구소 동문학술상 시상

15면 학부 소식

- ▷ 학생회 소식
- ▷ 간호대학생 연구발표회
- ▷ 동아리 소식
 - 동아리 탐방: Seed Shop
 - 동아리 소식: 소리
- ▷ 남학생 간담회

19면 대학원 소식

- ▷ 2014년도 후기 학위취득자 논문
- ▷ 대학원생 이야기
 - 국제학술대회 참가 후기
 - 국제교류프로그램 참가 후기
- ▷ 교수-대학원생 워크숍
- ▷ 연구지원금, 학술상 수여
- ▷ 졸업생 교수 임용 현황
- ▷ 국제학술대회 참가

23면 동창회 소식

- ▷ 동문 모교 방문 행사
- ▷ 동창회 대표자 회의
- ▷ 동문 동정
- ▷ 동창회 장학증서 및 동문 연구기금 지급증서 수여

24면 간호대학 발전기금

인사말

무덥던 여름이 지나고 캠퍼스에 낭만을 더해 주는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우리 대학 본관 옥상에 있는 정원에도 계절의 변화를 알려주는 가을꽃들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근처 창경궁, 종묘, 그리고 대학로 나뭇잎들의 가을 색이 기대됩니다.

지난 학기에 우리 대학이 2주기 간호교육인증평가를 받았습니다. 준비과정에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지만 부학장을 비롯한 평가위원 교수님들, 조교들, 행정실 직원들이 자체보고서를 쓰고 현장 실사를 준비하는 데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인증평가 준비과정에 우리 대학의 교육환경이 많이 정비되고 개선되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영역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8월말에 있었던 중앙일보 평가에서도 우리 대학이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 멋있는 중형 버스를 구입하였습니다. 2014년 1월부터 6월말까지 동문, 교직원,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버스구입 기금 모금운동을 전개한 결과 174분이 약 1억 3천 2백만원을 기부해주셨습니다. 이 기금으로 8월말 34인승 현대자동차 Aerotown이라는 중형 버스를 구입하였습니다. 이 버스는 앞으로 우리 대학 각종 행사뿐 아니라 학부 학생들이 실습지를 오가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모금 운동에 참여해주신 동문님들, 교직원, 학생,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여름방학동안 우리 대학 학부와 대학원 학생들이 외국 대학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우리 대학에 외국대학 학생들이 방문하는 등 활발한 국제 교류 활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학 학생 8명이 미국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에 4주간 연수를, 우리 대학 교수님 1분, 대학원생 2명, 학부생 5명

이 일본의 오이타 대학에 1주간 연수를 다녀왔고, 오이타 대학 교수님 1분, 대학원생 1명, 학부생 6명이 우리 대학에 1주 연수를 왔습니다.



2학기에도 학교에 다양한 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10월 10일에는 졸업 30, 40, 50, 60주년이 되는 동문들을 중심으로 모교 방문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벌써부터 기별 대표들을 중심으로 모교 방문행사를 준비하고 있어 그날 행사도 기대되지만 오래 만에 뵈게 될 선후배와의 만남이 기대됩니다.

10월 30일에는 간호과학연구소에서 주최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Wellness and Integrative Nursing Care"로 이 분야의 저명 국내외 학자를 연자로 초청하여 연구 및 실무의 최신 지견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실제 활용되고 있는 통합 및 대체 요법에 대해 강연도 듣고 연제 및 포스터 발표를 통해 이 분야의 연구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번 학기가 제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제 12대 학장으로 학교에 봉사하는 마지막 학기입니다. 그동안 제가 학장직을 수행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간호대학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0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학장 박 현 애

간호대학 소식 01

교수동정

김금순 교수 정년퇴임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터뷰를 맡은 학부생 김찬미, 이찬희, 남현지입니다. 교수님께서 30년이 넘는 긴 시간동안 기본간호학과 성인간호학을 연구하시고, 강단에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시다 정년퇴임을 앞두고 계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Q1. 지난 학기 교수님께 기본간호학 수업을 들으면서, 기본간호학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신 것을 느꼈습니다. 다양한 간호학 분야 중에서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간호사로 처음 근무를 시작한 곳이 일반외과였습니다. 그 후 비뇨정형외과를 거쳐 초창기 혈액투석을 하는 인공신장실에서 근무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인간호영역에서 근무를 했어요. 마지막에는 안이비인후과에서 수간호사로 근무하다가 학교로 옮겨오게 되었지요. 주로 외과에서 근무를 했으며 재활, 중환자 등의 영역을 거쳐 총 3년 반의 임상생활을 했습니다. 이 경험들을 바탕으로 대학에서는 기본간호학과 성인간호학을 중점으로 강의와 실습 지도를 맡았어요. 기본간호학을 주로 전담강의 하던 중 미국 연수를 다녀오게 되었는데, 기본적인 간호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분위기에 기본간호에 대한 중요성을 새삼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그 후 기본간호학 실습책을 집필하며 기본간호 영역에 대한 노력을 더욱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힘들기도 했지만 간호의 기본으로서의 기본간호학과 성인간호학의 중요성에 매료되어 지금까지 이 분야의 공부와 연구를 이어오게 되었답니다.

Q2. 네, 교수님께서 기본간호학 외에도 건강사정과 성인간호학 영역에서 40여권의 많은 책을 저술하셨는데요, 특별히 책 집필에 정성을 기울이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책에 특별히 애정을 가진 이유는 학생들이 우리말로 된 교재로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 때문이에요. 당시에는 적합한 교과서가 부족해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또한 내가 가르치는 과목이니 당연히 교재로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모두 직접 집필했습니다. 서울대학교 학생이라면 본교 교수가 만든 교재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렇게 시작한 것이 1989년도 서울대학교 출판부에서 나온 우리말로 된 첫 기본간호학 교재입니다. 이후에 성인간호학, 재활간호학, 중환자간호학, 건강사정 등의 교재들을 집필했고 학생들과 교수들에게 상당히 반응도 좋았던 걸로 기억해요. 많은 책을 집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많이 쓰려고 노력했기보다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실천에 옮긴 결과예요. 물론 시간투자도 많이 하였지요. 하루 일과시간에는 책을 쓸 시간이

없어서 아침 7시 반에 출근해서 집필하고, 일과를 마친 이후에도 밤늦게까지 집필하는 등 자투리 시간을 많이 이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Q3. 임상현장에서 간호사들이 적용할 수 있는 중재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주로 어떤 연구들을 진행하셨나요? 또한 전문 간호사 과정을 몇 년간 이끄셨는데 간호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을 말씀해주세요.

간호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거 중심의 간호가 중요합니다. 성인간호학에서도 간호의 근거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간호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실험연구가 가장 기본적인 연구라고 생각하여 나는 박사논문부터 많은 실험연구를 하였습니다. 현장에서 간호사들이 활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하였지요. 특히 통증, 스트레스관리에서 바이오피드백과 '긴축 억제 환측 운동'에 대한 중재연구는 상당히 인정받아 간호학 논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긴축 억제 환측 운동'이라 함은 건강한 부분을 억제하고 다친 쪽을 운동 시키는 것으로 처음 시도된 연구였는데 환자들에게 상당히 효과가 있었어요. 그 외에도 발 마사지, 웃음 요법, 유머 요법, 음악요법, 정보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간호중재의 효과를 규명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였지요. 학생임상실습에서의 연구, 암 환자의 재활, 생리통 등에 대해서도 실험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간호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간호의 역할을 확장하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해요. 특히 임상현장에 있는 간호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어려움에 움츠리지 말고, 신념을 가지고 방법을 차근차근 생각하며 실천해가는 노력이 필요해요.

Q4. 올해 1월 의학한림원 정회원으로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 외에도 우수간호과학자상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학술상 등 다양한 수상을 하셨습니다. 또한 한국간호과학회장 등 여러 학회장을 역임하시면서 간호학계의 리더로 활동하셨는데요, 저희 학생들이 미래의 리더로서 준비하고 갖추어야 할 소양을 말씀해주세요.

의학한림원 정회원 선정과 여러 학술상 수상은 간호학자로서 학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학문적으로 간호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간호사들이 임상현장에서 노력할 뿐 아니라 학계에서 연구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학회에 참석하여 학술발표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한국간호과학회장을 역임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보람 있게 생각하

는 것은 한국간호계의 숙원사업인 Asian Nursing Research(ANR)을 창간함으로써 한국간호잡지가 SCI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는 발판을 마련한 것입니다. 인간은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남과는 차별화된 잠재력을 바탕으로 본인의 장점을 꾸준히 발전시켜야 합니다. 창의적인 생각은 학업을 열심히 하고, 많은 책들을 읽고, 여행 등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사색을 많이 하는 등 어렵지 않은 노력으로 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훌륭한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지요, 먼저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지 본인의 능력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저술을 많이 하면서 학술 활동을 기본으로 해야하지요.

Q5. 교수님 취미가 여행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은퇴 후 꼭 가보고 싶은 곳이나 기억나는 여행지가 있으신가요?

나는 학회 참석을 위해 여러 나라를 방문하면서 6대주를 모두 가본 것 같아요. 여행을 할 때면 그 나라의 역사를 보는 것과 유물을 보는 것을 좋아해요. 특히 한자를 사용하는 중국 여행을 갈 때면 문자의 중요성을 깨닫죠. 페루, 잉카 문명과 비교해보는 재미도 있고요. 페루의 마추픽추도 감명 깊었어요. 인간의 힘과 더불어 종교의 힘이 얼마나 위대하던지... 티벳, 실크로드, 인도 등 동양 여행도 좋았습니다. 앞으로 은퇴 후에 시간이 많아지면 어느 곳을 여행하든지 시간에 쫓기지 않고 자세히 보고 오고 싶어요.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 고생하면서 배낭여행도 즐기고 싶네요.

Q6. 평생을 간호계에 헌신하셨는데요. 교수님께 간호는 어떤 의미인가요? 퇴직을 앞두고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이 있으신가요?

한국간호과학회장을 나가면서 paraphrase가 필요해 만들게 된 것이 WISE VIP입니다. 얼핏 보면 일반적인 단어지만 저를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의 앞 글자를 모아 새롭게 만든 용어예요. 평생을 WISE (Willpower 의지, Initiative 술선수법, Stamina 힘, Enthusiasm 열정)하고 VIP(Very Independent Person)로 살자는 생각으로 간호학에 헌신하였답니다. 논문 저술도 많이 했고, 다양한 제자들도 길러냈고요. 은퇴를 앞두고 돌아보니 간호학을 선택한 것은 매우 보람 있고 훌륭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혹은 어려운 선택이었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뿌듯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간호학 외에도 늘 나보다 나은 2세를 기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돌아보니 이것 역시 성공한 것 같아 뿌듯합니다. 하지만 계속 직장을 다니는 바람에 아이들에게 많이 신경 써주지 못했던 것은 조금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은퇴를 하면 작은 딸네 손자를 돌봐주며

지내고 싶습니다. 또한 동기회장을 해볼 생각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 동안 간호대학에 있으면서 동기들을 위해서 별다른 일을 해 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물론 친구들이 밀어줘야 할 수 있는 자리겠지만요(웃음). 현재 맡고 있는 간호사국가고시위원장은 임기가 내년 7월까지라 은퇴 후에도 당분간은 그 일을 할 예정입니다. 간호사 국가고시는 2016년부터는 기준도 바뀌고 문제도 실무 중심의 문제와 최소 업무 능력을 묻는 문항으로 10%정도 바뀔 예정이에요. 그러나 우리 학교 학생이라면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오래된 문제를 수정하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니라 꽤나 바쁜 일을 진행 중에 있어요.

Q7. 마지막으로 간호의 길을 먼저 걸어오신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몸이 건강해야 합니다. 아프거나 체력이 떨어지면 의욕도 없어지고 업무 성과도 부족합니다. 항상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을 지니도록 해야 하는 이유지요. 난 평생 건강문제로 결근이나 지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떤 때는 하루에 8시간씩 강의를 해가며 열심히 일하였죠. 주변 사람들이 나보고 열정적이라고 말하는 것도 다 이런 이유에서일 겁니다. 두 번째로 성실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서 지각이나 결석을 해서는 안 되고, 늘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회가 늘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준비를 충실히 하면서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선택한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신을 가장 사랑하면서 현재의 일에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 노력한 만큼 일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간호대학 소식 02

연구실 탐방: 노인간호연구실

송미순 교수

노인간호연구실은 최근 10여년간 주로 만성질환 노인의 자기관리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인구 증가 속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며 최근 국가적으로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으나 국가에서 예측한 것보다 항상 더 빠른 속도로 인구노화가 진행되어 고령사회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대책이 이슈가 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건강문제는 인구노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영역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그 이전 연령 인구에 비해 의료비를 3배 이상 사용 한다. 노인인구는 90% 이상이 만성질환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는데 이는 노인 의료비 증가의 주원인이다. 그러므로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잘 관리하여 합병증이나 불구를 예방하고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노인 간호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 분야이다.

만성질환은 완치가 되지 않는 질환의 특성상 의료적인 치료 외에 환자 자신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질환을 관리하는지가 질환의 예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만성질환은 식이,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 개인의 생활습관이 질병결과나 예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고 개인생활 습관을 올바르게 유지하는 사람이 의료적인 치료 과정에 대한 이행도 더 높다. 최근 미국 NIH에서도 만성질환자 자기관리를 최근의 관심 분야로 강조하고 있다. 만성질환자 질병관리를 위한 생활습관변화 전략에 대한 연구가 최근 많이 이루어져 건강행위이론으로 알려진 여러 가지 이론들이 개발되었다. 이러한 이론들의 영향으로 이전에 건강행위를 변화시키기 위한 중재는 주로 대상자에게 필요한 자기관리 내용, 건강행위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초점이었으나 최근에는 대상자가 건강행위를 실행하게 만드는 것은 '아는 것' 외에 환자의 동기화, 임파워먼트(empowerment), 장애 요인중재, 성격특성고려등의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고 매개하므로 이러한 것에 대한 중재가 같이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이 자기관리를 잘 하도록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은 일반적인 건강증진 중재의 요소 외에도 노인의 특성을 잘 고려하여야 한다. '어디에 어떤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들이 많이 있는가? 노인들의 학습과 행위 변화에는 어떤 장애요인이 있고 어떤 촉진 요인이 있는가?' 등이다.

노인간호연구실에서 이 분야의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것은 1999년에 간호대학에서 강북구보건소와의 협약에 의해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부터이다. 당시 이 지역의 당뇨병이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당뇨병 자기관리 교육을 맡아 노인들 대상의 당뇨병 자기관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게 되었다. 초기 교육 프로그램은 주로 당뇨병에 대한

지식 위주로 내용이 구성되었는데, 연 2회 정도 교육이 계속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드러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운동에 대한 대상자들의 행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습훈련이 필요하였고 이에 는 스포츠과학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였다. 또한 식이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식단을 선택하고 적당한 음식의 양을 제한하는 방법이 실습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연구비 지원이 없어 적극적인 연구가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2007년에 본인을 연구책임자로, 간호대 박연환 교수, 체육학과 송옥 교수, 의학과 조비룡 교수, 임재영 교수를 공동연구자로 연구재단에서 만성질환 노인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비를 수주하게 되어 자기관리와 관련된 본격적인 실험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때에는 학제간 인력이 참여하여 그 만큼 만성질환자 자기관리 프로그램의 내용이 더 충실하게 개발되었다. 그 당시만 해도 간호대학의 대학원생 중 전일제 학생이 매우 부족할 때였는데 운 좋게 우리 연구실에는 김선호 박사과정생과 김향란, 송민경 석사과정생이 있어서 연구의 진행과 복지관에서의 현장 적용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이 연구 결과로 세 편의 SCI 급 논문과 5편의 KCI 논문을 각 분야에서 발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과제에서 만들어진 중재 프로그램에는 건강행위 이론이 기반되지 않았고 연구기간이 짧아 프로그램 개발에 필수적인 대상자 요구분석과정이 미흡하였다.

2010년에는 다시 건강행위이론 (IMB model, 정보-동기-행위기술 이론)을 기반으로 한 당뇨병 노인을 위한 자기관리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3년짜리 연구과제를 연구재단에서 지원 받게 되었다. 이 때에는 시간의 여유가 있었으므로 Intervention mapping 등 대상자 요구사정, 이론선정, theory translation, 매뉴얼 등 세부과정개발, 현장적용, 결과평가 등의 프로그램개발에 대한 전략들을 학습하고 적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가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2013년에 마무리 되었는데 SCI급 논문 두 편과 KCI급 논문들이 발표되었고 지금도 관련 연구의 학술지 발표를 위한 원고 교정을 하고 있다.

2013년도에는 연구재단 지원연구인 노인복지관 간호사 역할개발에 대한 3년 기한의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 연구는 만성질환노인 자기관리프로그램 개발 연구의 현장이었던 노인복지관의 간호사 역할 개발이 절실히 인식하고 제안하였던 연구이다. 현재는 1년 정도가 진행된 상태인데 노인복지관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역할 수행의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포커스그룹 면담과 조사연구 등을 통해 조사하고 개선점 등을 분석하였다.

앞으로 노인복지관에서 이 연구의 시범 사업이 시행될 예정인데 이전 연구에서 개발한 노인만성질환자 자기관리 프로그램들을 시범사업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적용할 예정이므로 기 개발한 만성질환 자기관리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 노인복지관 간호사의 역할이 명확해지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최근 연구에 참여해 온 대학원 학생들, 최수영, 김세안, 장선주, 서경산, 윤미라, 최정실, 이수진, 임승화, 고하나, 김은호의 열정과 창의적인 제안들은 노인간호연구실 연구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었다. 현재 시행중인 연구가 끝나는 시기는 나의 퇴임시기와 거의 맞물려서 이 연구가 나의 간호학자로서의 연구를 마무리하는 연구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나의 연구 과정에 참여해준 노인대상자들, 공동연구자들, 그리고 노인시설들의 담당자들, 간호대학, 그리고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연구재단에 모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옆의 사진은 노인간호연구실 멤버들이 2014년 7월 홍콩시그마학회에 참석하여 촬영한 사진이다.



간호대학 소식 03

간호교육인증평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간호교육인증평가에 참여하여 2014년 6월 기관 인증을 획득하였다. 이번 인증평가를 위해 간호대학에서는 방경숙 부학장을 자체평가 준비위원장으로 하여 간호대학 교수 10명으로 구성된 대학평가 TFT를 구성해 지난 2013년 2월부터 인증평가를 준비해왔다. 성과기반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이번 인증평가는 비전 및 운영체계, 교육과정, 학생, 교수, 시설 및 설비, 교육성과 등 크게 6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간호대학에서는 인증평가 기준에 맞추어 자체 평가한 보고서를 2014년 3월 28일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 제출하였으며, 4월 30일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평가단으로부터 간호대학인증평가를 위한 현장 실사를 받았다. 실사 당일에는 약 150개에 달하는 자료파일을 준비하여 그 동안 서울대학교에서 간호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물들을 보여주었다.

평가단의 평가결과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의 교육과정은 간호교육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국내 최고 대학으로서의 면모에 걸맞게 체계적으로 탄탄히 꾸려져 있고, 학생들의 교육성과를 평가하는 방법 역시 단계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평가단은 그 외에도 학생, 교수, 시설 등 모든 영역에서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와 함께 모든 평가 준비를

성실히 이행해준 교수들에 대한 감사도 잊지 않았다. 평가 종료 후 박현애 학장은 대학 인증 평가를 위해 수고한 자체평가위원들에게 감사의 선물을 전하며, 그동안의 수고를 격려하였다. 6월 30일에는 방경숙 부학장이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인증서 전달식에 참석하여, 기관 인증서를 수령하였다.



간호대학 소식 04

에티오피아 모자보건사업 관련 워크숍 개최

국제보건사업에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의 역할

지난 8월 20일(수)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1층 강당에서 “Global Health & Nursing in Ethiopia”라는 주제로 [에티오피아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역량강화사업]의 종료 보고회 겸 국제보건에 대한 경험을 나누는 워크숍이 열렸다. 이 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으로 2012년 2월부터 2014년 8월까지 2년 6개월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우리대학의 방경숙 교수가 연구책임자를 맡아 박영숙 명예교수, 이인숙 교수, 채선미 교수와의 공동 연구로 진행되었다. 대학원생 연구원으로는 강현주, 유주연, 박지선, 김잔디, 김형경이 참여하였으며, 본교 졸업생 오상준과 호주 간호대 출신인 김영민이 에티오피아 현지에 파견되어 활동하였다.

사업의 연구책임자인 방경숙 교수의 개회사와 코이카의 동상진 과장의 축사, 그리고 박현애 간호대학 학장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국제보건과 관련된 다양한 연자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박현애 간호대 학장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의 국제보건 사업 수행 경험이 향후 우리나라의 국제보건사업 참여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며 사업팀을 격려했다. 워크숍에서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이 에티오피아에서 수행했던 모자보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보고와 함께 한국국제협력단의 아프리카 대상 보건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나라 보건분야 ODA사업의 경향 변화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다. 또한 서울대학교 의대 오주환교수가 국제보건의료에서의 의료인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여 앞으로 의료분야에서의 우리의 역할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 국제보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추세에 따라 이번 워크숍에도 다양한 분들이 참석하였는데, 특히 현재 국제보건 관련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 뿐 아니라, 대학원생, 학부생, 또한 국제보건에 관심 있는 고등학생까지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국제보건 분야의 미래가 밝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했다.

국제원조의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변모한 유일한 국가인 우리나라는 앞으로 글로벌 원조 규모를 더 증가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이 국제보건 관련 사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며, 세계인의 건강형평성을 추구하는 간호대학의 차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에티오피아 모자보건사업 소개

본 사업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이 맡은 첫 번째 국제보건사업으로 그 의미가 크다. 본 사업에서는 국제적인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UN의 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8가지 목표 중 4번째 목표인 아동 사망률 감소와 5번째 목표인 모성건강증진에 초점을 두었다. 모성과 아동의 건강은 특히 저개발국들의 국가적 보건문제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의 대상인 에티오피아 역시 모자보건 수준이 열악한 대

표적인 지역 중 하나로서, 국제적 평균에 비해 모성사망률, 신생아 사망률 등이 10배~2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모자보건 사업은 보건인력 훈련과 지역주민 인식 개선 등이 이루어진다면 짧은 시간 내에 빠른 상황 개선이 가능한 분야이기도 하다. 본 사업에서도 전체 사업의 내용을 1) 보건인력 역량강화, 2) 지역주민 인식 개선, 3) 보건소 시설 개보수로 정하여 계획과 전략을 세우고,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였다.

우선 보건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보건인력(간호사, 조산사, 보건지소 인력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강의와 실습 교육을 수행하였고, 보건인력들이 업무 중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인력별로 모자보건 서비스 매뉴얼을 정비하였다. 그리고 2회에 걸쳐 현지의 보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초청 연수를 진행하여 현지 보건시스템 개선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한국과 에티오피아 양국의 친선 강화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역주민을 만나기 위해서는 교통수단이 열악한 현지의 상황을 고려하여 직접 마을로 찾아가는 아웃리치를 통해 보건 관련 교육을 시행하였다. 여성 주민들과 주민 리더들에게 가족계획, 산전관리, 산후관리에 대한 교육을 36개의 각 마을 별로 세 차례에 걸쳐 수행하였을 뿐 아니라, 모자보건 사업에서 등한시되곤 하는 남성 지역주민들에게도 가족계획에 대한 교육을 하여 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모자보건 관련 라디오 방송, 보건메시지가 포함된 달력, 포스터 등을 배포하여 주민들이 보건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의 전기와 수도 시설을 개보수하고 각종 행정 기자재와 의료용 기자재를 제공함으로써 보건 관련 환경 개선에도 기여하였다. 물이 많이 부족한 에티오피아의 상황으로 인해 보건소에서도 물 사용이 원활하지 않았으나 보건소의 시설 개보수를 통해 안정적인 전기와 물 공급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사업을 통하여 보건인력의 지식과 수행능력이 향상되었을 뿐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산전관리, 시설분만, 산후관리와 가족계획 실천률도 크게 향상되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부분으로 평가될 만하다.



간호대학 소식 05

간호대학 버스구입

간호대학에서는 이번 학기에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간호대 버스 구입을 이루었다. 그동안 사용하던 버스는 13년이나 사용하여 학생들의 안전이 염려될 정도로 노후되었고, 25인승이어서 학생 수에 비해 규모가 너무 작았다. 34인승의 새 버스 구입을 목표로 간호대학에서는 올해 초부터 '간호대 버스 구입을 위한 발전기금 모금'이라는 엽서를 제작하여 교수, 동문, 직원, 학생과 학부모 등에게 버스 구입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동참을 요청하였다. 그 결과 모두 174명이 동참하여 총 1억 3천여만원을 모금하였으며, 8월 말에 드디어 버스 구입의 꿈을 이루었다. 이를 기념하여 9월 2일 오후 3시에는 간호대학 신관 앞마당에서 박현애 학장을 비롯한 모든 교수와 학생, 그리고 행정직원들이 모여 버스 안전 기원제 행사를 개최하고 떡과 음료를 나눠 먹으며 즐거움을 함께했다. 박현애 학장은 버스기금 모금에 동참해 준 모든 분들께 감사한다며 버스 사진과 탑승한 학생들의 사진을 담은 감사편지를 만들어 발송하였다. 앞으로 간호대의 버스는 간호대 구성원 모두의 염원을 함께 담은 상징물로 기억될 것이며, 다양한 실습

지로 이동하는 간호대 학생들의 안전한 이동을 책임지면서 그들의 꿈과 비전을 응원할 것이다.



간호대학 소식 06

국제교류: 교수교류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 교수본교 방문

2014년 4월 21일,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의 Dr. Mi Ja Kim, Dr. Tonda Hughes 교수가 방문하여 본교 간호대학, 시뮬레이션 센터, 간호학 박물관을 방문하였다. 최희승 국제교류위원장을 포함하여 여러 교수들이 자리를 함께 하여 두 대학 간의 교류방안을 논의하였다.



박현애 학장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 방문

2014년 8월 12일부터 18일까지 박현애 학장이 SNU-UIC 교류 증진 및 본교 하계연수생 지도차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UIC)를 방문하였다.



국제교류 : 학생교류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에서는 학부생들의 활발한 국제교류를 지원하고 있다. 2014년 하계방학기간동안 8명의 학부생이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UIC)로, 5명의 학부생과 2명의 대학원생이 일본 오이타현립간호과학대학(Oita University of Nursing and Health Sciences)으로 연수를 다녀왔다.

총 13명의 학부생과 2명의 대학원생이 학교의 지원을 받았는데 UIC를 다녀온 학생의 경우 1인당 18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오이타현립간호과학대학을 다녀온 학생의 경우 7명의 학생이 총 1,000만원을 지원 받았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과 UIC는 2012년 협약을 맺어 학술교류를 시작하였으며, 오이타현립간호과학대학은 1999년에 협약을 맺어 2000년부터 총 15회의 교류가 이루어졌다. 특히 올해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오이타현립간호과학대학 국제교류 15주년으로 더욱 뜻 깊은 교류의 장이 열렸다. 지난 9월 2일(화)와 9월 5일(금)에 각각 신관 102호와 103호에서 국제교류보고회를 개최하여 교육연수를 다녀온 학생들이 선후배, 동기와 연수 경험을 공유하는 뜻 깊은 자리를 가졌다.

1.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UIC) 하계 단기 연수

지난 2014년 7월 21일부터 8월 15일까지 4주 간, 학부생 김정훈, 김수현, 김소현, 김지영, 김지인, 류아라, 장하영, 최기원 등 8명의 학생이 미국 일리노이주의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에 하계 단기 연수를 다녀왔다. 이들은 1주 간 UIC의 cardiovascular nursing과 pulmonary nursing에 대한 강의를 듣고 3주 간 University of Illinois Medical

Center에서 실습을 하였다. 연수 참가자 일동은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간호교육의 현황을 관찰하고, 실제 임상에서 현지 간호사들과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고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려보았다. 또한 관광을 통하여 미국의 정취를 느끼고 돌아왔다.



2. Oita University of Nursing and Health Sciences 하계 단기 연수

본교 김혜원 교수님을 포함하여 대학원생 최선임, 이아랑, 학부생 고유진, 김세주, 김은정, 이송이, 김지현 등 7명은 지난 2014년 7월 20일부터 7월 27일까지 7박 8일 동안 일본 Oita University of Nursing and Health Sciences로 하계 단기 연수를 다녀왔다. 일본의 간호, 연구에 대한 세미나에 참석하고, Yufuin Rehabilitation Hospital(유후인 재활 병원), Oita Prefectural Hospital(오이타 현립병원), Oita Public Health Center(오이타 현립보건소), Meiji Seiryuen Nursing Home(메이지 요

양원), Beppu Pediatric Medical Center(벳부 발달 의료센터) 등을 방문하며 일본 간호와 의료 시스템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일본 전통 의상과 다도 체험, 벳부, 유후인 등의 관광지를 여행하며 일본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다. 전 일정에서 Oita University of Nursing and Health Sciences 학생들이 동반하여 돈독히 우정을 쌓았다.



3. Oita University of Nursing and Health Sciences 학생들의 본교 방문

Oita University of Nursing and Science의 교수와 대학원생 1명, 학부생 6명은 2014년 8월 17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간 하계단기연수를 위해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을 방문했다. 간호학 박물관, SHINE center, skills lab 등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을 둘러보고, 서울대학교 병원 및 의학박물관, 서울

대병원 헬스케어시스템 강남센터, 그린힐 너싱홈, 서울아산병원 등을 방문하며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의료 시설에 대해 공부할 기회를 가졌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동대문, 경복궁, 명동 등을 방문하고 한복입기 및 다도 체험을 통해 한국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4. UIC 하계 해외단기연수 후기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3학년 김경훈

저는 현재 간호 분야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서의 간호 시스템을 보고 경험하여 우리나라의 간호를 더 폭넓고 비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싶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고 저희가 4주 동안 방문한 UIC(University of Illinois, Chicago) 간호대학과 UIC hospital은 모두 세계에서 손꼽히는 곳이라고 하여 굉장히 큰 기대를 안고 다녀왔습니다.

UIC 하계연수는 학구적인 성격이 강하여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첫 1주는 cardiovascular part의 강의를 듣고 나머지 3주 동안 UIC hospital에서 임상실습을 하며 personal presentation, case study, journal club 등 3가지의 발표수업을 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첫 주 심혈관

계 질환 강의는 전체적인 내용을 한 번에 복습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 사소한 질문에도 교수님께서 열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서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미자 박사님과 박현애 학장님의 강연에서도 정말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3주 동안에는 UIC hospital에서 진행된 임상실습에서, 총 21개의 병동을 하루에 한 곳씩 돌며 실습할 수 있었습니다. 실습을 하면서 미국의 간호 환경이나 시스템, 간호사(RN)의 업무 등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생각을 한 부분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병원 환경이나 간호사 업무의 차이점입니다. 간호사 1명당 환자 수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어 환자를 더 밝은 얼굴로 잘 간호할 수 있는 것이 훨씬 좋아보였지만 병실에 환자 혼자 있고 보호자가 없어서 환자의 모든 것을 간호사가 해줘야 한다는 점은 아쉬웠습니다. 그 외에 약물 바코드 인식 시스템과 전산화 되어있는 물품 정리방식도 인상 깊었습니다.

오후에 진행된 발표수업은 Personal Presentation, Case Study, Journal Club 이렇게 세 종류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발표수업에서 학문적인 내용을 복습한 점도 많지만, 일본 학생들과 함께 영어로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영어로 발표준비와 진행을 한 것이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처음 준비할 때에는 걱정이 되었지만 성공적으로 발표를 마치고 나서는 훨씬 큰 자신감과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영어로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연습을 한 것이 나중에 더 큰 일을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카고에서 4주 동안 생활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정말 많이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시내 관광, 각종 박물관 견학, 공원에서 열리는 음악회, 미시간

호수에서 펼쳐지는 불꽃놀이 등 멋진 구경도 많이 하였고 교수님께서 초대해 주셨던 바베큐 파티도 접해보지 않은 새로운 문화여서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시카고에서의 생활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동안 느끼고 배운 것은 앞으로의 저의 진로, 간호학을 배우는 태도와 가치관 등에 정말 큰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이렇게 얻은 값진 경험들을 앞으로 제 진로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더 많은 친구들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간호대학 소식 07

조교 임용

2014년 7월 1일 간호대학에서는 지역사회간호학 조교로 이진선 졸업생(2010졸)을, 기본간호학 조교로 정예슬 졸업생(2010졸)을 임용하였다.

간호대학 소식 08

입시홍보프로그램 : 간호학 캠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에서는 지난 7월 31일, 간호학에 관심이 있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간호학 캠프'를 개최했다. '간호학 캠프'는 간호학을 탐구하고 직간접적으로 간호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간호학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고취시키고, 학생들의 진로 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간호학 캠프의 준비 기간은 약 한 달, 학생회를 주축으로 자발적으로 지원한 22명의 재학생들이 멘토와 도우미로 참여하였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간호학 캠프'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이 주최하고, 간호 분야에 관심 있는 30명의 고등학생들이 함께 참여하였다. 전국에서 지원한 사전 신청자 중 간호학의 소양을 갖추고 발전가능성이 엿보이는 학생위주로 입시홍보위원회에서 선발하였다.

참가자들은 박현애 학장의 환영 인사말을 시작으로 김성재 기획위원장의 "간호학의 멋진 미래"라는 제목의 간호학에 대한 소개 강의를 들었다. 이후 학생회에서 준비한 Ice Breaking 시간을 통해 함께 참가한 친구들, 재학생 멘토들과 서로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조를 나누어 재학생 멘토들과 함께 캠퍼스 및 병원 투어와 시뮬레이션 실습에 참여하였다. 간호대학의 시설을 둘러보고, 간호학의 다양한 분야를 안내하고자 2007년 서울대학교 간호교육 100주년을 기념하여 설립된 간호학 박물관을 비롯하여 시뮬레이션실습실, 간호대학 학생들의 기본간호수기 자신감과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된 skill's lab, 지역사회간호학실습실 등을 돌아보았다. 또한 간호대학의 기숙사인

함춘사, 대한의원본관, 의학박물관, 의학도서관 등연건캠퍼스의 구석구석을 둘러보았고, 서울대학교병원의 암 병원, 어린이 병원, 외래 등을 방문하여 실무 현장의 간호사들을 직접 만나고 설명을 듣는 생생한 경험을 하였다.

시뮬레이션 실습은 현장과 유사한 시뮬레이션 교육을 통해 간호전문 지식과 임상수기 등을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2년 개소한 시뮬레이션 실습실(SHINE center)에서 이루어졌다.

참가자들이 직접 간호사의 업무를 경험해볼 수 있도록 활력징후 측정, 심폐소생술, 자연분만의 세 가지 시뮬레이션 실습 체험 시간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활력징후 측정 실습에 참가한 학생들은 활력징후의 정의와 원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서로 짝이 되어 맥박, 혈압, 체온, 호흡을 직접 측정하였다. 또한 가족분만실에서 정상분만과정을 체험하였다. 진통에서 출산까지 이르는 전 과정을 1분 남짓으로 축소한 시뮬레이션이었지만 참가자들은 실제 사람크기의 모형에서 태아가 나오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매우 흥미로워했다. 마지막으로 심폐소생술의 원리, 과정을 교육받고 실제 모형을 대상으로 흉부압박을 시행하는 시뮬레이션을 경험하였다.

모든 투어와 실습 과정을 마친 후에는 간호대학 입학 설명을 들었다. 입학 전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수험생활을 미리 경험한 선배가 학업, 수험, 입시와 관련된 내용을 조언하고 간호학의 장점 및 강점, 졸업 후 다양한 진로개척 가능성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한 학생들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과 간호사라는 직업, 그리고 앞으로의 진로 등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과 관심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2014 서울대학교 간호학 캠프 수료증'과 기념품을 받았다.

간호학 캠프에 대한 참여자들은 Shine Center에서 직접 시뮬레이션을 체험한 것이 좋았다는 응답과, 간호대학과 서울대학교 병원의 다양한 시설을 견학하고 Skill's lab에서 직접 체험을 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는 의견

이 많았다. 또한 재학생 멘토들이 친근하게 대해주고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에 대해 궁금한 점을 편하게 물어볼 수 있어서 좋았다는 반응과 선배들의 솔직한 조언과 경험담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을 주었다.

우리대학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 '간호학 캠프'가 향후에도 우리나라 청소년들로 하여금 간호학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꿈을 키우며 그들의 진로탐색을 돕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행사로서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간호대학 소식 09

간호대학-서울대학교병원 간호본부 교류

1. 2014년 취업대비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난 2014년 7월 4일, 서울대병원 간호본부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은 간호대학 본관 408호에서 2015년도 예비 졸업생 중 서울대학교병원 지원자 39명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최은하 간호행정 파트장과 정재원 학과장의 특강으로 이루어진 취업 대비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병원면접의 진행방식과 준비사항에 대한 강의를 접한 4학년 학생들은 면접을 앞두고 예비 간호사로서 마음을 다지고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다.



2. 2014년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서울대학교병원 간호본부 협의회

2014년 8월 26일 가든뷰에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과 서울대학교병원 간호본부의 협의회가 있었다. 송경자 서울대학교병원 간호본부장의 개회로 회의를 시작하여 간호본부와 간호대학에서 지난학기 활동을 차례로 보고하고, 2학기에 있을 양 기관의 행사 및 교육프로그램에 상호 협력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간호대학 소식 10

2014년 하계 교수 Workshop

7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2014년 간호대학 교수 하계 워크숍이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본관과 강원도 강릉에서 개최되었다. 간호대학 교수 19명과 조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원 교과과정과 간호대학 교수 채용”을 주제로 김성재 기획위원장의 사회로 박현애 학장의 인사말로 시작하여, 방경숙 부학장의 “대학원 교과과정 정책연구 결과” 발표가 이어졌다. 김성재 기획위원장은 “정신간호학, 성인간호학 전공과목의 향후 운영방향”을 발표하였고 이에 대한 교수들의 논의가 이어졌다. 방경숙 부학장은 “Strategic Planning for Faculty Recruitment & Academic Excellence” 관련 타 대학 사례를 발표하며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이 세계 우수대학을 참고하여 나아가야 할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오후에는 대학원 교과과정 운영과 전공별 향후 계획, 향후 교수 채용에 대해 세부전공별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를 토대로 여러 교수들이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의 비전과 미션을 합의하고, 석사와 박사학위

교육과정의 목표와 개선방향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였다.

8일부터 9일까지는 강원도 강릉으로 떠나 남향진, 금진향, 경호포수 등을 관광하면서 간호대학 교수의 단합과 사기진작을 도모하였으며,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간호대학 소식 11

2014학년도 제 69회 후기 학위수여식

8월 28일 제 69회 후기 학위수여식이 관악캠퍼스 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제 69회 후기 학위수여식에서 성낙인 총장은 공동선을 위한 지식의 공헌과 이웃과의 소통 및 경청, 도전을 즐겨워하는 자세 등을 강조했다.

특히 성낙인 총장은 “최고의 지식은 사회봉사와 인류공헌을 위해 만들어 쓰이는 것이며, 훌륭한 인재는 지성과 함께 공공성으로 무장된 따뜻한 가슴을 겸비한 선한 인재”라며 “민족의 동량, 사회의 중심으로 드높은 자부심을 갖되, 지식과 열정을 공동선을 위해 공헌하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인재가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성총장은 사회 곳곳에서 소통하고 화합하는 소통의 역할, 이웃과 소통하고 경청하는 미덕, 이웃의 목소리를 귀담아듣는 피스메이커의 역할 등을 강조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위수여자를 비롯해 학장, 부학장, 학과장과 학위 수여자의 지도교수들이 함께 참석하였다. 제 69회 학위수여식에서

는 학사 5명, 석사 15명, 박사 10명이 학위를 받았으며, 10학번 최경은 학생이 최우수상을 수여하였다.



간호대학 소식 12

간호대학 환경개선

간호대학 제2연구동 및 본관 지하주차장 보수 공사

9월부터 한 달 여간, 간호대학 제 2연구동 옥상 및 지하의 방수공사를 시작하였다. 방수기능이 향상되어 연구동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는 대학

원생들에게 쾌적한 연구 환경이 될 것이다. 또한 간호대학 본관 지하주차장의 누수도 보수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편의를 도모할 것이다.

간호과학연구소 소식 01

행사안내

1. 2014년 국제학술대회 안내

10월 30일 “Wellness & Integrative Nursing Care”를 주제로 아래와 같이 제 10회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일시 : 2014. 10. 30 (목) 9:00~17:00

장소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제 2연구동 2층 강당

등록비 : 일반 10만원, 대학원생 5만원, 외국인 90USD(현장등록 없음)

등록방법 : sjy@snu.ac.kr로 신청서 제출 또는 홈페이지(rins.ac.kr)를 통해 등록

사전접수 : 2014.7.1~10.3

초록접수 : 2014.7.1~9.30, sjy@snu.ac.kr 로 제출

송금계좌 : 302-0658-4031-11(농협) 이명선

문의 : 02-740-8839, FAX : 02-747-3948

The 10th International Conference
Wellness & Integrative Nursing Care
October 30, 2014

09:00~9:30 Registration
09:40~11:00 **Wellness & Integrative Nursing: Practice and Research**
Dr. Miriam Cameron (University of Minnesota)
11:00~11:40 **Redefining Wellness in Nursing: Constructing Phenomenological Nursing Pedagogy**
Dr. Eunyoung Suh (Seoul National University)
11:40~14:00 Lunch & Poster Round
14:00~14:40 **Preventive Medical Effects of Nature Therapy**
Dr. Yoshifumi Miyazaki (Chiba University)
14:40~15:20 **Integrative Wellness Care by Convergence with Old Wisdom and New Technology**
Dr. Seung-Wan Kang (Seoul National University)
15:40~16:20 **Symptom Management and Integrative/Complementary Therapies in Cancer Patients**
Dr. Alex Molassiotis (The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Registration
Fee: 100,000 won(90 USD) by October 3, 2014
Registration by e-mail(See attached file) or Homepage
Call for Abstract
Poster Presentation Only
Deadline: August 31, 2014
More details: See attached file
Secretariat
Korean: Jiyoun Seo / sjy@snu.ac.kr
Tel : +82-540-8839 Fax: +82-747-3948
English/Chinese: Jin Xianglan (中国姓名: 金香蘭) kimxianglan@snu.ac.kr
Japanese: Atsami Hara (日本姓名: 飯倉充美) atsamihara@mc.com

Bank Information
Bank name: NONGHYUP BANK
Bank address: 75-1, Chungjeongno 1-gu, Jung-gu, Seoul, Korea
SWIFT CODE: NACPKRSE
Account number: 302-0658-4031-11
Account name: Myungsun Yi
Venue
Auditorium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Homepage : rins.snu.ac.kr

2. 2014년 하반기 수요학술세미나 안내

9월 17일부터 11월 19일까지 간호대학 신관 502호에서 점심시간(12시~1시)에 수요학술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이다. 자세한 일정은 다음과 같다.

날짜	주제	연자
9월 17일	프랑스의 요리 : 먹거리에서 예술의 영역 으로의 승화 과정	박현애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학장)
10월 8일	통일시대 보건의료	황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0월 22일	Social network 분석 입문과 활용	손동원 인하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11월 5일	논문을 통하여 살펴보는 간호역사 연구 방법	이꽃메 (상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11월 19일	간호사와 생명윤리	권복규 (이화여자대학교 의학교육교실 교수)

3. 외국인 저명학자 초청 세미나 안내

10월 31일 오전 9시~12시, 간호대학 408호에서 Dr. Miriam Cameron (University of Minnesota)을 초청하여 “Integrative Nursing : Yoga and Research”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으로 Dr. Splisbury(University of York)와 Dr. Cathrine Fowler(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를 초청한 세미나도 계획하고 있다.

간호과학연구소 소식 02

연구소 소식

1. 산·구 연구소장 이·취임

이명선 교수가 연구소장직을 이임하고 9월 1일 김혜원 교수가 제 11대 신임 연구소장으로 취임하였다. 김혜원 교수는 2016년 8월 31일까지 2년 동안 연구소장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새로운 운영위원 위촉 및 연구소 재정비를 통해 더욱 활발한 간호연구 및 학술 활동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하는데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2. 학술지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소식

간호과학연구소에서는 연 2회(4월, 10월) 학술지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구, 간호학의 지평)”를 발행하고 있다. 연구소발간 학술지가 2014년 7월 29일,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KoreaMed 등재가 확정되어, 본교 교수뿐 아니라 동문들의 학술 활동의 확장에 기여하게 되었다. 본 학술지는 온라인 투고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투고 규정 및 관련 사항은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홈페이지(http://rins.snu.ac.kr) 참고하시기 바란다.

3. 외국인 저명학자 초청 세미나 개최

7월 14일, 15일 양일간 간호대학 제2연구동 컴퓨터교육실에서 박창기 교수(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를 초청하여 “Methodological Issues & Strategies for Nursing Research”라는 주제로 통계 특강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간호대학 교수 및 대학원생 50명이 참석하여 Survival

Analysis/Quantile Regression, SPSS Macro program: Process를 이용한 mediation/moderation analysis 등 고급 통계분석에 관한 전반적인 강의를 통해, 간호연구에 필요한 지식과 견문을 넓히는 게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4. 다학제 심포지엄

6월 18일 “포괄간호서비스 제도화에 대한 심포지엄”이란 주제로 다학제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간호대 교수, 대학원생, 간호사 등 약 170명이 참여하여 포괄간호서비스 제도화 방향, 포괄간호서비스병원 시범운영 현황 및 과제, 포괄간호서비스를 위한 건강보험수가 개발 방향, Theoretical and practical issues in redesigning nursing care in acute care

hospitals 등에 대해 심도있는 학술 교류의 장을 가졌다. 특히 Dr. Karen Spilsbury의 비디오 강의를 통해 포괄간호서비스의 글로벌 관점 및 이행을 넓힐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5. 2014년 상반기 수요학술세미나

3월 12일부터 5월 21일까지 총 6회의 수요학술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수요세미나는 보건 의료분야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연건의 역사를 찾아서, 환자 안심병동 운영과 환자중심 간호 구현, 카지노 지역에서 살아가는 도박중독 여성의 도박 경험, 진경산수화와 풍속화, 간호연구와 윤리 등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졌다. 수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개최되는 세미나에 간호대학 대학원생과 학부생, 서울대학교병원 간호사, 교수, 기타 외부인이 참여하여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넓히고, 연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6. 간호과학연구소 동문학술상 시상

간호과학연구소에서는 본교 박사과정생들과 간호대학 동문들의 학술 활동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이은옥 명예교수가 출연한 동창회 연구기금으로 2명에게 각각 100만원씩 연구비를 지원하는 동문학술상을 시상하였다. 수상자로는 동창회원 최영숙(소아중환자실에서 비계획적 기관내관 발관과 관련된 예측요인과 결과)과 박사과정생 권은진(유방암 환자 배우자를 위한 모바일 기반 지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이 선정되었다.



학부 소식 01

학생회 소식

1. 문화자치국

관악캠퍼스 홈커밍데이

5월 13일 관악캠퍼스 버들골과 과방에서는 그 동안 서로 다른 캠퍼스에서 친해질 기회가 부족했던 선후배간의 친목을 다지고자 홈커밍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관악캠퍼스의 14학번 새내기들이 연건캠퍼스에서 찾아온 선배들을 위해 다과와 프로그램을 준비하였고, 선후배가 함께 조를 이루어 퀴즈와 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많은 간호대학 학생들이 관악캠퍼스의 활기참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선후배간의 사이도 돈독해질 수 있었던 보람찬 시간이었다.

간호대학 총 운동회

8월 30일(토) 의과학관 체육관에서 총 운동회가 진행되었다. 참가인원은 각 반별로 10명~20여명 정도로 총 70여명이 참가하였다. 먼저, 각 반의 구호를 정하고 닭싸움과 미션게임으로 몸풀기 게임을 하였다. 그 후에 전락줄다리기나 피구 등의 본격적인 게임을 통해서 각 반끼리의 단합을 이룰 수 있었다. 이번 운동회에서 가장 큰 특징은 남학우들의 참여도가 높아서 남학우들만의 축구 경기를 시행할 수 있었다는 점이었다. 총 운동회를 통해서 각 반들은 서로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었다.



MT(Membership Training)

3월 28일(금)~ 29일(토) 1박 2일 동안 대성리로 MT를 다녀왔다. 참여 인원은 총 60여명으로 14학번 50여명, 13학번 10여명, 12학번 3명이 참여하였다. MT에서 선후배의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학기 초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주는 소중한 정보교류의 장이 되었다.

집행부 LT(Leadership Training)

지난 4월 4일 집행부원 23명은 집행부원 간의 돈독함을 다지고 개인의 리더십과 화합능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1박 2일로 LT를 다녀왔다. 각

부서별로 중요한 안건을 다 같이 논의해서 결정하고 사업의 구체적인 방향을 잡는 시간이 되었으며 동시에 서로 가까워질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개강파티

8월 30일 총운동회가 끝난 직후 2학기 총 개강파티를 열었다. 각 반의 반장들의 주도 아래 반별로 테이블에 나눠 앉아 저녁을 먹으며 자유롭게 이야기가 이어졌다. 방학 끝 무렵 오랜만에 동기와 선후배를 만나는 자리라서 학생들이 신나게 즐기는 분위기였다.

2. 학습지원국

과목 오리엔테이션

집행부에서는 3월 학기 초 과목별 오리엔테이션 사업을 진행했다. 각 과목별로 성적이 우수한 선배들을 초청하여 과목별 공부노하우를 듣고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학교생활에 가장 큰 도움이 된 사업 1위에 선정되는 학생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NMP(간호대 멘토링 프로그램)

2013년도부터 시행된 NMP는 선배와 후배가 한조를 이루어 한 학기동안 이루어지는 멘토링 프로그램이며, 관악캠퍼스와 연건캠퍼스에 나누어 있는 선후배간 친목도모와 신입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013년과 달리 소규모 체제로 진행된 2014년도 1학기 NMP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이용한 만남인증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신입생들의 긍정적인 지지를 받아 학생회가 우수하게 진행한 1학기 사업에 선정되었다.

스터디

‘공부해서 남주자’라는 테마로 진행된 2014년도 1학기 스터디 사업은 각 스터디 그룹 내에서 서로의 공부를 돕는 것뿐만 아니라 간호대 커뮤니티인 snursing.com에 학습자료를 게시하는 것을 장려하였다. 페이스북

그룹 인증방식을 사용하였고, 작년과 동일하게 '최다공부량'의 그룹을 시상하고 학습자료를 공유해준 팀에게는 새롭게 '특별상'을 시상하였다. 스터디 사업은 특히 2학년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더욱 체제를 보완하여 2학기에 새로이 진행될 예정이다.

3. 학생복지국

책 나눔 장터

2014년 1학기 개강과 동시에 책 나눔 장터를 열었다. 여러 전공서적을 구입해야 하는 후배들의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선배들로부터 책을 기증받아 학생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책을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쉬는 시간과 수업 이후 시간을 통해 책을 판매했고, 이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간호대 버스 구입을 위한 발전기금으로 기부했다.



중간고사/기말고사 간식사업

복지부에서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기간마다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2014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의학도서관이 아닌 간호대학 구관에서 간식사업을 진행하였다. 간호대학 구관으로 사업장소를 변경하면서 더 많은 학생들이 간식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고, 머핀이나 토스트 등 다양한 간식으로 공부에 지친 학생들을 응원하는 시간이 되었다.



함춘사 영화제

5월 16일 함춘사 지하 1층 자습실에서 밤샘영화제를 열어 영화를 상영하였다. 지하 자습실에 여러 학년의 학생들이 모여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함께 감상하며 공감하고 답소도 나누는 등 학생들에게 즐거운 경험이 되었다. 특히 간식을 미리 준비하여 영화제동안 학생들의 눈뿐만 아니라 입이 심심하지 않게 해주었으며, 적절한 영화 선택으로 많은 학생들이 즐기고 참여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학부 소식 02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간호대학생 연구발표회 개최

6월 5일 간호대학 제2연구동 강당에서 학부생들의 연구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연구활동을 격려하기 위한 연구발표회가 개최되었다. 3학년 2학기에서 4학년 1학기에 걸쳐 “간호연구실습” 교과목을 통해 수행된 연구결과를 각 팀별로 발표하고 이를 평가하여 시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현애 간호대학장과 이명선 간호과학연구소장의 인사말로 연구발표회가 시작되었고 김정은 교과 담당교수와 정재원 학과장, 김금순 교수가 논문발표의 심사위원을 맡았다. 연구발표회 결과, 최우수상에는 “The Inventory of Male Friendliness in Nursing Program을 활용한 국내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 기반 장벽과 남성 친화도 분석 및 학과 만족도의 상관관계 연구(이병민 외)”가 선정되었고, 우수상으로는 “포털사이트 간호사 이미지 검색 결과를 통한 간호사 이미지의 성적 대상화에 대한 연구(김혜진 외)”, “가족 구성원의 뇌사자 장기기증 희망에 대한 간호대학부생의 동의 의도에 관한 연구(유현빈 외)”가 선정되었다.



연구발표회 최우수상 그룹 인터뷰

Q1. 연구를 끝마치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일단 정말 기쁩니다. 마음속에 있던 짐이 하나 사라진 기분이라까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두 학기에 걸쳐 진행되었기에 지치고 부담되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다소 불평하기 쉬운 환경이었지만,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끝까지 조원들이 함께 수고해서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Q2. 연구 주제 선정과 기획에 이유가 있다면요?

주제를 정하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흥미 있는 주제이면서 동시에 연구가 가능한 주제여야하기 때문이죠. 선행 연구를 조사하던 도중 외국에서 남자 간호사를 대상으로 그들이 학부 시절 경험했던 성 기반 장벽(gender-based barrier)을 연구하는 논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마침 저희 조에 남자가 3명이라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다른 조원들도 흥미롭게 생각하여 연구 주제로 채택되었습니다.

Q3. 연구 내용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해주세요.

저희 연구 제목은 "IMFNP를 활용한 국내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 기반 장벽과 남성 친화도 분석 및 학과 만족도의 상관관계 연구"입니다. 저희 연구는 국내 남자 간호대학생이 성과 관련된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이와 그들의 학과 만족도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남자 간호대학생이 느끼는 성 기반 장벽이 얼마나 많은지를 나타내는 남성 친화도와, 학교에서의 적응 정도를 나타내는 학과 만족도와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였고, 둘 사이에 상관성이 있다고 드러났습니다.

Q4. 팀플레이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모든 초행길이 그렇듯이 방향을 알 수 없는 여행이었기에 쉽지 않았습다. 주제 선정, 보고서 작성, 설문 조사 등 업무를 언제까지, 어떤 형식을 갖춰 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 헤매었던 기억이 나네요.

동시에 10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각자의 생각과 목표가 달라 연구 범위가 변하고, 서로의 일정이 있어 스케줄을 맞추기 어렵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함께 했기에 연구가 가능했다고 봅니다. 공동으로 일하는 과정은 자신과 타인의 재능을 찾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또한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자주 만나며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정말 친해졌는데, 말하지 않아도 이해하는 전우와 같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간호를 배우며 고민하는 사람이 함께 모여 연구하며 친해지는 경험이 제게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학부 소식 03

동아리 소식

1. 동아리 탐방: 시샵(Seed Shop)

시샵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텃밭 동아리이며, 시샵이라는 동아리명은 Seed Shop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4년 2월 강승완 지도교수님과 간호대 학생들이 만든 동아리로 간호대 연구동의 옥상 텃밭에서 다양한 채소를 직접 재배하여, 작게는 간호대학 학생들이 식물을 키우는 과정을 통하여 정신적 치유를 경험하고 크게는 지역사회에서 전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간호 영역의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시샵은 연간 제철 과일 및 채소의 파종시기와 수확시기 등 식물들의 생장 기간에 따라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봄과 가을에 파종하고 기르기 쉬운 작물들을 재배하며, 여름에는 오랜 장마기간과 무더위

를 견딜 수 있는 열매 채소를 재배합니다. 겨울에는 식물들의 재배 방법과 특이 사항들을 미리 확인하며 그 다음 해의 활동을 준비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올 봄에는 청경채, 치커리, 상추를 재배하였고, 봄에서 여름으로 계절이 변하는 동안 콩, 방울토마토, 가지, 오이, 파프리카, 고추, 부추와 딸기를 재배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옥수수과 버를 키우기도 하는 등 여러 작물들을 간호대학 연구동 옥상에서 기르고 있습니다.

시샵은 연간 식물 재배 활동 이외에도 상반기/하반기 시샵 파티와 농촌 체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작물 수확기간인 6월 말에 수확한 상추와 부추를 활용하여 상추 쌈밥, 부추전을 만들기도 하였고, 수확

한 고추를 첨가하여 된장찌개를 요리하여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 시삽 파티는 7월 17일 10시부터 12시까지 간호대학 구관 휴게실에서 진행이 되었으며, 간호대학 교수님들과 행정실 선생님들과 함께 즐거운 자리를 가졌습니다. 하반기 시삽 파티는 12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농촌 체험 활동의 경우, 간호대학 옥상에서 벗어나 동아리 자문위원인 이근이 선생님의 우보농장(고양시)에 방문하여 농장체험 활동을 해보기도 하고, 수확한 참외, 깻잎, 옥수수, 감자 등을 다 같이 나눠먹기도 하였습니다. 일일 체험으로 진행하였으며, 앞으로 농장 체험 활동을 하며 직접 체험하고 배운 내용을 적용하여 옥상 텃밭을 더 열심히 가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시삽은 지속적인 연간 재배활동과 농촌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토대로 더욱 더 발전해나가는 텃밭 동아리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 동아리 소식: 소리

안녕하세요, 소리 3기 회장을 맡고 있는 11학번 김다솜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다들 2학기를 힘차게 시작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간호대학 음악동아리 소리에서도 2학기에 더 활발한 활동을 위해 여름방학동안 새롭게 변화한 점이 있는데요, 연구동 지하에 위치했던 소리 동아리방이 연구동 4.5층에 있는 쾌적한 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환기가 잘 되지 않아 합주를 할 때 생기는 먼지와 소음문제로 인해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학장님, 부학장님, 학과장님을 비롯하여 행정실 선생님들께서 저희의 어려움을 배려하여 깨끗하고 환기도 잘되는 곳으로 동아리방을 제공해 주신 뒤 쾌적한 환경을 위해 문 주위의 방음시설과 에어컨, 전기 콘센트 등도 함께 신경써주셨습니다. 여름방학 시작 때부터 이사를 시작하여 대청소까지 마친 뒤에 지금은 매일 가서 연습을 하고 있을 정도로 동아리의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소리는 간호대 유일의 음악동아리로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재능을 뽑내

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통기타, 일렉, 베이스, 보컬, 키보드, 우쿨렐레, 드럼, 카혼, 바이올린 등 한 가지 혹은 여러 가지 파트에서 각자의 재능을 키우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기공연, 대동제 공연, 어쿠스틱 공연, 길거리 공연, 간호대 동문행사 초청공연 등에서 그 실력을 뽐내며 점차 성장하고 있습니다. 공연 이외에도 엠티, 음악캠프, 세미나, 정모 등으로 친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동아리방으로 이사를 한 뒤 2학기부터는 더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시행해 볼 예정입니다. 우선은 10월 21일 마로니에 공원에서 버스킹 공연을 하기 위해 열심히 연습 중이니 오셔서 소리가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분위기인지 구경 오셔도 좋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간호학과 선,후배와의 친목도 도모할 수 있는 음악동아리 소리에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구동 4.5층의 소리 동아리방을 방문해주세요!

학부 소식 04

남학생 간담회

2014년 1학기를 마친 후 간호대학 남학생들의 간담회가 열렸다. 박현에 학장, 방정숙 부학장, 정재원 학과장은 13명의 재학 중인 남학생들을 만나 학교생활의 어려운 점을 듣고 남학생들의 학교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간호대학에는 남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 부족하고, 남학생들이 함께 모여 족구나 농구 등을 하려면 멀리 떨어진 다른 학교의 체육관이나 족구장을 대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였다. 이에 박현에 학장은 구관 공터에 이동

식 네트와 농구 골대를 설치하고, 함춘사 지하 공터에 이동식 철봉을 설치하여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운동과 친목활동을 격려했다. 운동시설 설치 이후 박준민 학생은 재학생들이 활발하게 운동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남사 대학원생 선배들과 함께 농구와 족구를 하고 배드민턴을 치며 턱걸이 대결을 하는 등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만족스러워했다. 또한 남학생들의 학교생활을 돌보아주신 교수님과 행정실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대학원 소식 01

2014년 후기 학위취득자 논문 목록

간호학 석사(15명)

이현주	학령전기 아동의 스마트폰 과다사용과 문제행동 및 어머니 양육효능감과 관계
조은미	모바일 웹기반 핵심기본간호술 성취평가 관리시스템 개발 및 평가
안자영	항암치료를 받는 유방암 환자의 증상, 불확실성 및 가족지지가 극복력에 미치는 영향
이효연	섬망예방 중재가 응급중환자실 입원환자의 섬망발생에 미치는 효과
강한나	임상실무지침 기반 고혈압 관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적용
고하나	노인복지관 노인전문간호사의 역할 개발
김지영	영유아 건강검진 이행정도에 따른 영유아 어머니의 인지적, 환경적 요인의 차이
김지영	산모의 경막외마취에 대한 인식과 분만결과
심주희	슬관절 전치술 노인 환자의 수술 전 자가 통증조절기 사용 교육이 수술 후 환자에게 미치는 효과
백지현	뇌졸중 환자의 식이지식 '식이요법 실천정도' 식이교육 요구도
이민혜	노인암환자의 사전의사결정에 대한 태도와 가족기능
이유미	복막투석 노인환자의 자기간호 행위 관련요인
이지산	소셜 네트워크 기반 체중 감량을 위한 경쟁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및 효과 검증 연구
조수정	맞춤형 임신성 당뇨병 관리 스마트폰 앱 개발 및 평가
이이쿠라아츠미	객관화된 구조화 임상시험(OSCE)의 학생평가와 교수자 평가 간의 차이 비교 및 영향 요인

간호학 박사(10명)

김보열	쌍태아와 단태아의 모유수유 실천 및 지속 영향요인 비교
김세안	구강자기관리 프로그램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당뇨병환자의 지식, 동기, 자기효능감, 행위와 구강건강상태에 미치는 효과
김명숙	동사섭 훈련 적용 자기관리프로그램이 고혈압 노인의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자기관리행위 및 혈압에 미치는 효과
엄선옥	건강코칭프로그램이 빈곤계층 여성노인 고혈압대상자의 자기효능감, 건강행위 실천 및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
김유정	관상동맥중재술 환자의 삶의 질 구조모형
원효진	간호단위의 사회연결망 특성과 관리자의 리더십, 간호사의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와 관계
김성재	근골격계 질환 노인의 자가관리부담 측정도구개발
하이경	임상판단력 루브릭을 활용한 디브리핑이 간호학생의 임상판단력, 지식과 자신감에 미치는 효과
장혜영	재가 치매노인 배우자의 돌봄체험에 관한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
차지은	자기관리과정을 중심으로 한 혈액투석환자의 삶의 질 모형구축

대학원 소식 02

대학원생 이야기

Sigma Theta Tau International (STTI) Honor Society 2nd European Regional Conference를 다녀와서

아동간호학 박사과정 강현주

9월을 넘어 10월의 문턱을 두드리는 요즈음, 높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지난 6월에 스웨덴에서 봤던 쾌청한 하늘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난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스웨덴의 예테보리에 위치한 University of Gothenburg에서 열렸던 Sigma Theta Tau International (STTI) Honor Society 2nd European Regional Conference에 간호과학연구소와 지도교수님의 연구프로젝트 지원을 받아 참석하였습니다.

국제학술대회 참가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지도교수님인 방경숙 교수님께서 진행 중인 '미숙아 성장 발달 위험요인 확인을 위한 전향적 종단연구'에 함께 참여하며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작년 12월 시그마 테타 타우 유럽 지부의 학술대회가 스웨덴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접하고 교수님과 연구 진행의 중간 결과를 정리하여 초록을 작성하고 참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초록의 주제는 'Factors Related to Postpartum Depression of Mothers with Premature Infants'로 미숙아를 출산한 어머니의 산후우울의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고 드디어 올해 1월 중순에 초록이 채택되었다는 메일을 받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교수님의 다른 연구 초록도 채택이 되어 같은 아동간호학 교실의 동료들과 함께 스웨덴 학회 길에 오를 수 있어 더욱 신이 났습니다. 학회 사전 등록을 마친 후 초록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고 포스터를 만드는 한편, 항공편과 숙소를 예약하는 등 먼 여정을 떠날 준비를 하였습니다. 저는 경비의 일부를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에서 지원받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회 일정이 1학기 중강 직후여서 학기 마무리를 서두르고 바로 비행기에 올라왔습니다.

14시간 가까이 긴 비행 끝에 스웨덴 스톡홀름에 도착하였습니다. 주말이라서 그런지 거리의 상점도 문을 닫고 한적했지만 특유의 맑은 공기와 함께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으면서도 고풍스러움을 간직한 구시가의 분위기를 짧게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스톡홀름에서 고속기차를 타고 3시간 정도 지나 예테보리에 도착하였습니다. 예전에 김연아 선수가 참가했던 피겨 세계선수권 대회가 열렸던 곳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예테보리는 스웨덴의 서남쪽에 있는 항구도시로 스웨덴의 제2의 도시라고 불릴 만큼 무역이 발달한, 북유럽에서는 꽤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저희는 숙소에서 학회가 열리는 예테보리 대학까지 트램을 타고 이동하였는데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불과 몇 십 년 전 서울에도 전차가 운

행되던 시절이 있었다지만 현재에는 자동차가 큰 도로를 꽉 메우고 있지요. 반면 예테보리는 주된 교통수단이 트램이나 버스였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학회장은 작은 숲길 사이 시끄럽지 않은 조용한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학회장에 들어서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시작을 기다리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유럽인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가끔 중국, 타일랜드, 일본에서 오신 분들도 눈에 띄었고 우연히 우리나라 교수님 몇 분도 뵈게 되어 매우 반가웠습니다. 이번 학회의 주제는 'Leadership, Learning, and Research in Nursing and Midwifery'였습니다. 간호학과 조산학에서의 리더십과 교육, 연구의 역할과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STTI의 역할에 대한 논의의 자리이면서,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임상과 학계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연구 주제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특별히 저는 Hester Klopper 교수님의 'STTI's role in leadership, learning and research in nursing and midwifery' 기조연설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Selfless service, compassion, having a heart'로 보여질 수 있는 servant leadership이 간호학과 STTI의 리더십 뿐 아니라 개인과 지역 사회, 그리고 국가적인 리더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Sawsan Majali 교수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Global health 2035의 방향과 간호학과 조산학 교육에서의 국제적 전략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오신 Berit Foss 교수님은 간호학의 ethics and caring science의 관점에서 responsible leadership의 지식체와 이론의 개발이 중요함을 역설하셨습니다.

북유럽이라는 땅은 저에게 너무 낯설고 먼 곳이었지만, 같은 학문 안에서 함께 고민하고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습니다.

또한 이번 학회에서는 The Patient's world, The Midwife's world, The Nurse's world-actions and interventions/experiences, values and



work environment/leadership의 소주제별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어 연구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학회장을 오가는 길에 나무들이 쪽 늘어서 있고 푸른 잔디가 깔린 산책로가 있었습니다. 그 길을 거닐며 교수님들과 동료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예테보리의 여유로움과 청명한 날씨를 편안하게 즐겼던 기억이 오

래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박사과정이라는 바쁘고 고된 시기 가운데 기분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학원 과정에 들어오는 후배들에게도 과정 중에 국제학술대회 참가의 기회를 찾아 경험해 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가 후기

간호관리학 석박통합과정 이아랑

우연히 같은 연구실 선생님의 권유로 오이타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간호사로 근무하며 궁금했던 외국 병원들의 업무 방식, 시설, 업무분담체계, 간호사의 복지를 직접 가서 보고 온다는 사실에 기대가 컸습니다. 또한 일본의 의료체계를 1차 의료시설부터 3차 의료시설까지 두루 보고 일본의 병원관리를 알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첫날 일본 간호를 전반적으로 설명하는 세미나에서는 간호사의 업무가 어떤 법규에 기본을 두고 있는지 설명하는 내용이 인상적이었고 기본을 중시하는 일본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의료 서비스 요구도 증가와 간호사 인력 부족이라는 문제를 겪었습니다. 2008년 10월 2명의 간호사의 과로사 인정을 계기로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이 법제정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전문 간호사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회정책차원의 간호사복지가 보장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연구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오이타 대학은 전문간호사를 교육과정으로 처음 도입한 학교로 모성간호학 전문간호사 과정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특히 모성간호학 실습 시설이 매우 좋았는데, 손 씻기를 가르치면서 감독할 수 있도록 위쪽에 거울이 달려 있어 학생들이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해주었으며 발달 과정별로 인형을 제작해 태아의 성장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낯선 곳은 환자 친화적 시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환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침대와 물걸레 배치를 하고, 키에 따라 침대의 높이와 휠체어를 조절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보편적이어서 모든 보건소와 병원은 장애인 휠체어를 타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부 자동문 시설과 낮은 경사를 갖추고 있었으며 복도도 넓었습니다.

오이타 대학병원에서는 간호사들에 대한 배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6

개월의 신규 교육프로그램 동안 프리셉터가 철저하게 지도하고, 이후에는 진로지도 및 상담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놀랍게도 오이타 대학병원의 1년 미만 사직률은 6년 동안 0%를 유지했습니다.

육아휴직은 3년으로 월급의 반 정도가 계속 지불된다고 하며 복직할 경우 업무 적응 프로그램을 2개월 동안 제공한다고 합니다. 3세 어린이에게는 병원 내 탁아소를 사용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고 24시간 운영되었으며, 전문 간호사에 대해 공부할 수 있도록 병원에서 학자금을 주는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법률 제정 이후에 간호사를 위한 복지가 눈에 띄게 좋아진 것을 보면서 한국에서도 간호사를 위한 법률 제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랐습니다.

연수기간동안 일본의 간호학도들과 함께 간호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고민하는 시간들이 참 좋았고, 대학원생으로서도 외국의 간호현장을 경험하는 새로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인연들을 만나고 앞으로도 이어가게 되어 기쁘고, 더 많은 학생들이 이런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대학원 소식 03

스승의날 기념행사 및 교수-대학원생 워크숍

2014년 6월 13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간호대학 제 2연구동에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과 대학원생 자치위원회가 마련한 스승의날 기념행사로 교수-대학원생 워크숍이 열렸다. 이번 행사에서는 '철학자는 무엇을 하는가: 그들이 던지는 질문 다섯 가지'를 주제로 서울대 철학과 이석재 교수가 특강을 진행해 주었다. 이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방경숙 부학장의 '대학원 교육과정 운영 안내'가 이어졌고, 학생들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대학원 교육과정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하였다. 워크숍을 마친 후 함께 점심식사를 하며 사제간의 정을 두터이 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학원 소식 04

연구지원금, 학술상 수여

본교 대학원생 중 연구결과 및 연구계획서를 발표하여 연구비 지원 혹은 상을 받은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원금/학술상	수여자 이름	전공
서울간호학술상 (최우수상)	강한나	정보 석사과정
서울간호학술상 (우수상)	정유나	성인 석사과정
서울간호학술상 (우수상)	조수정	정보 석사과정
대한의료정보학회 학술상	이지산	정보 석사과정
서울시 간호사회 한마음 장학금	김영란	모성 박사과정
대한질적연구학회 지원금	김혜진	성인 박사과정
시그마학회 지원금	방활란	성인 박사졸업
경기도간호사회	강경화	정신 박사과정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지원금	권은진	성인 박사수료

대학원 소식 05

졸업생 교수 임용 현황

본교 대학원 졸업생 중 2014년 4월 이후 교수로 임용된 졸업생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임용 대학	임용 대상자	전공
서울여자대학교	김혜원	성인간호학
인하대학교	서민희	성인간호학
대전대학교	오지현	성인간호학
한양대학교	장혜영	특임교수
대구보건대학	황신우	모성간호학
상명대학교	현혜순	지역사회간호학

대학원 소식 06

국제 학술대회 참여명단

본교 대학원생들이 참여한 국제학술대회 현황은 다음과 같다.

학술대회명	일시	이름	전공
Asia Pacific Association for Medical Informatics (아시아태평양 의료정보학회)	2014. 11. 1~2	조수정	정보 석사과정
Sigma Theta Tau International's 25 th International Nursing Research Congress	2014. 7. 24~28	최한나 이수진	정보 박사과정 성인 박사과정
The 12th International Congress in Nursing Informatics(NI) 2014	2014. 6. 22~25	최한나 김미령 이지산	정보 박사과정 정보 박사과정 정보 석사과정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I	2014. 6. 26	김미령 이지산	정보 박사과정 정보 석사과정
Sigma Theta Tau International (STTI) Honor Society 2nd European Regional Conference	2014.6.16~18	강현주 박지선 유주연 오상준	아동 박사과정 아동 박사과정 아동 박사과정 정신 석사과정

동창회 소식 01

동문 모교 방문행사

오는 10월 10일 관악 캠퍼스와 간호대학 강당에서 졸업 30, 40, 50, 60주년 기념 모교방문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동문 약 9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동문들은 관악 캠퍼스의 발전기금사무소를 방문하여 발전기금을 전달하고, 서울대 박물관과 간호학 박물관 관람 및 캠퍼스 투어를 하며 학교의 발전하고 변화한 모습을 둘러볼 예정이다. 또한 이번 행사는 특별히 기별 대표들을 중심으로 30, 40, 50주년 동문의 공연과 학교생활 영상 상영 등 동문들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예정되어 있어 서울대 간호인들의 친목과 우의를 다지는 시간이 되리라 기대한다.

동창회 소식 02

2014년도 동창회 대표자 회의

지난 7월 3일(목) 간호대학 본관 102호 강의실에서 동창회 이사, 기대표, 지부대표, 단체대표 등 60여명의 동문이 모여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모임은 55년 졸업 동문부터 2014년 졸업 동문까지 60년을 아우르는 선후배 모임으로 의미가 컸다. 이번 모임은 그 동안 소원했던 선후배, 지역 간의 소통과 교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마련하였다. 김혜원 상임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회의에 앞서 양광희 동창회장의 행사 개요 설명과 박현애 학장의 인사가 있었고, 서자원 동문(77년 졸업, 경기대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교수)의 '서울대인의 긍지와 가치창출'이라는 제목의 특강이 있었다. 이후 대표자 각자의 소개 시간을 갖고, 분위기 있는 모교 수정체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친목과 소통의 장은 계속되었다.



동창회 소식 03

2014년도 동창회 장학증서 및 동문 연구기금 지급증서 수여식

지난 9월 18일(목) 양광희 동창회장, 동창회 임원진과 장학기금과 연구비기금 기부자가 참석한 가운데 동창회 장학증서 및 김영숙(79졸업)동문 연구기금 지급증서 수여식이 있었다. 2014학년도 2학기 장학금은 대학원생과 학부생 총 11명에게 74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김영숙 동문연구비는 심일수(02졸업, 보건교사)동문에게 100만원이 지급되었다.



동창회 소식 04

동문 동정

63년 졸 백월랑 동문 : 장학기금 1,000만원 출연(2014년 8월)

82년 졸 정재심 동문 : 울산대 간호학과장 취임(2014년 9월)

88년 졸 이현주 동문 : 우송정보대 부총장 승진(2014년 7월)

89년 졸 임은옥 동문 : Sigma Theta Tau International의 제 25회 International Research Nursing Congress에 서 University of Pennsylvania School of Nursing의 임은옥 동문이 International Nurse Researcher Hall of Fame Award 수상(2014년 7월).

임은옥 동문은 방법론적 이론가로 여성건강분야에서 저명한 학자로, 상황구체이론(situation-specific theory)의 새로운 접근법이 간호 이론의 중요하고 생산적인 발전에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받았다. 임은옥 동문은 현재 Xi Chapter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간호대학 발전기금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의 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간 : 2014년 3월 1일~2014년 8월 31일

동문 및 교수 기부자			
간호대3학년	간호대63년졸업생일동	간호대학 2014 졸업동기	간호대학 2학년 재학생 일동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간호본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학생회	서울대학교병원 간호본부	공은희
김매자	김미란	김미영	김선희
김소연	김수경	김영숙	김영아
김영임	김용선	김혜원	박달이
박정윤	송경자	송미순	신정희
유주연	윤순녕	이남주	이명경
이소우	이윤경	이인숙	이홍자
정현명	정혜선	정희주 외 6명	조경숙
조귀례	조동란 외 15명	조동란	조성현
조수정	채선미	최명애	최스미
최정수	최희승	한달룡	한선희
익명			

학부모 기부자				
류병렬	양민관	오민자	이기섭	이수연
조상완	최현미	허성환	익명	

교직원 기부자	
한경희	

기타 기부자	
이전목원리한방병원	정금식
(주)태평소금	최경숙

발전기금 안내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발전기금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학생들의 교육 및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국제학술 교류 활동 및 연구시설에 투자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기부금 출연방법

방문납부, 무통장 입금, 자동이체 등이 가능합니다.

방문납부

학교를 내방하여 기금을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무통장 입금

농협 079-17-065324 서울대발전기금 (간호대학)

신한 100-023-643537 서울대발전기금 (간호대학)

기타

현물, 유가증권, 부동산 등의 기부는 전화해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문의처 : 02-740-8802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발전기금을 위한 출연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전액 세제상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